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57호
9월 21일
2024년
토요일

#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제73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 ‘제2회 한국교회기도의날’(10월 3일) 개최

### 전세계 생중계 ‘제2회 한국교회기도의날’ 위해 기도당부
###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허사가 되도록…한·미 동맹 강화

김영준 목사
예하성 총회장
갈릴리큰소망교회

본 교단(총회장 김영준 목사) 제73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가 지난 9월 12일(목) 오후 1시 총회본부에서 열려 최근 진행 중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앞으로 진행될 일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실행위원회에 앞서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는 한국교회 기도의날과 관련하여 준비상황을 설명했다. “한국교회기도의날 기획집행위원회는 10월3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회 한국교회기도의날’로 하여 각 교회와 신자들이 기도하는 날로 정했다. 5년 전 ‘제1회 한국교회기도의날’에 전국에서 오신 그리스도인들이 광화문 네거리에서부터 남대문까지 광장과 도로에 입추의 여지없이 모여 기도했다. 우리 교인들도 대거 참여했다. 나라와 교회가 직면한 위기로 인하여 모두 일심으로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의 징조를 보여주셨고 또한 임박한 위기를 면하게 하여 주셨다. 하지만 지금은 제1회 한국교회기도의날 당시보다 더한 위기 상황이다. 급변하고 요동하는 국내외의 정세와 극심한 자연재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전국 각 교회와 각 처소에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현재 거하고 있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시간으로 기도문을 올린다든지 의견을 전하여 기도의 확산을 위해 진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곧바로 드려진 예배는 교단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광주지방회장 김영호 목사의 기도,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영준 목사는 고전 15:58 말씀을 본문으로 ‘신령한 목회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신령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며 일꾼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령자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그 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전임총회장 임웅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2부 회의는 총회장 김영준 목사 주재로 서기 장동근 목사의 회원점명 후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개회선언, 전회의록 낭독, 총무 보고가 이어졌다.

총무 오세준 목사는 총무보고를 통해 73차 정기총회가 ‘마음을 담대히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라는 주제로 은혜 가운데 열려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해외선교사 목사안수, 사모연합회 정기총회, 73차 총회장 취임감사예배, 탁구선교회 모임, 73차 총회 제1회 고시위원회 모임 고시일정 수립, 세계하나님의성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장 회의(APAGF) 심용재 목사 참석,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연합수련회 교육국 주관 개최, 사이버신학원(신학연구원, 목회대학원) 2024학년도 개강, 2025년도 목사고시 대상자 서류심사, 세계하나님의성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신학연합회(APTA) 이사회 및 학술심포지엄 심용재 목사(국제총회장 선교위원장) 참석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재무 김기진 목사의 은퇴로 새롭게 선관위를 통해 재무에 선임된 재무 최정식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백영자 목사의 지출보고가 있었으며 결의 및 안건 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전도사임명 청원, 교회전출입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원,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회주소변경 보고, 선교사가입 청원, 교역자휴직 청원, 교역자사임 청원, 교역자은퇴 원로 보고, 교회폐쇄 청원, 교역자소천 보고 등의 내용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73차 총회 각 국장과 각 위원장 중 임기가 만료된 헌법위원장에 직전총회장 김병묵 목사가, 여교역자국장에는 조영란 목사가 각각 임명되었다.

분 지방회 설립을 요청한 경기서지방회에 대해 이를 받아들였으며 김포지방회 푸른교회 이득상 목사는 원로로 추대되었고 담임에는 이수지 전도사로 변경되었음을 보고했다.

기타사항으로 2024년도 여교역자국 추계수련회 및 야유회가 9월 26일(목)부터 28일(토)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것과 타교단 가입자 연수교육이 10월 7일(월)과 14일(월) 양일간 총회본부에서 개최되는 것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실행위원회는 전임총회장 김인찬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자 선발 위해 최선

### 2025목사고시 접수자에 대한 서류심사 실시

교단 고시위원회(위원장 이석호 목사)는 지난 9월 5일(목) 오전 11시 총회 회의실에서 목사고시 접수자에 대한 서류심사 모임을 갖고 면밀한 자격검토와 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서기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고시위원 이문근 목사의 대표기도, 고시위원장 이석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롬 13:1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시키시는 것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서 해야 하고, 너무 욕심 부려서 무리하게 주의 일이라 해서 밀어붙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주의 일을 하되 더욱 주님이 시키시는 일에 집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역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특별히 목사임직을 위해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했다.

곧바로 이어진 목사고시 응시생들에 대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여나 부적격자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목사고시 일정에 만전을 기하고 부족한 서류를 일부 보완토록 했다.

한편 2025목사고시 오리엔테이션은 9월 30일(월) 오전 10시 총회본부 예배실에서 열린다.

푸른초장 말은시내

##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

조용목 목사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왕하 7:3~9)*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때 아람 나라의 벤하닷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사마리아 성 안으로 피신한 후 성문을 굳게 닫자 아람 군대는 항복을 받아내려고 성을 완전히 포위하여 식량공급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성 안의 식량위기는 절망적 상태가 되어 서로 아기를 잡아먹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죄 없는 선지자 엘리사를 비난하면서 그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성 중에 양식이 풍성하게 되어 밀가루 한 말을 한 세겔로, 보리 두 말을 한 세겔로 살 수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비웃은 경호장관을 향하여 “당신이 당신 눈으로 보게 될 것이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오.”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나병환자 네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처절한 절망밖에 없었으나 그들은 절망을 거부하고 오히려 놀라운 생각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 두면 살려니와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그들은 결단을 내리고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곳을 향하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쓰러지기도 하고 서로 일으켜주기도 하고 부축하며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아람 진영에 이르러 보니 기이하게도 사람이라고는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이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터벅거리는 발걸음소리와 넘어지고 일어나며 서로 위로하는 소리가 아람 군대에게는 지축을 뒤흔드는 병거의 바퀴소리와 기마대의 말발굽 소리 그리고 대군대의 함성소리로 들리도록 섭리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람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네 사람은 적진에 이르러 한 천막에 들어가 산적한 음식을 마음껏 먹고 마셨고 은과 금과 의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물밀듯이 달려가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의복과 양식을 취하였습니다. 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던 경호장관은 엘리사의 말대로 성문에서 백성들을 통제하다가 사람들에게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예언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네 사람의 나병환자를 쓰셨습니다. 그들이 극심한 난국에 직면하여 대처한 태도에서 우리가 그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믿음의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난관과 위기에 직면하면 ‘어떻게 하면 이 악조건을 딛고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인가’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의 도전에 적극적인 자세로 응전합니다. 현재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과감히 일어나 결단을 내리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둘째, 그들은 소망의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실낱같은 희망에 큰 권능을 더해 주셨습니다. 희망을 버린 사람은 좋은 소식을 들어도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여러분은 곤경에 처할지라도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들은 사랑이 가득한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네 사람은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행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성 중의 백성들이 굶주림과 죽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 어두운 밤길, 거친 들판을 되돌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양식과 의의 옷을 발견하고 이를 먹고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발견한 아름다운 소식과 복된 체험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 지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황혼에 일어난 네 사람은,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들로 인하여 원망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당면한 현실이 어둡고 어려워도 희망을 가지고 기적을 기대하는 소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함하고 속여 취하는 이기심이 없고 다른 사람도 행운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알려주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은혜와진리교회)**

## “서울시 교육감에 가장 적합한 후보를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 추대위원회〉(이하 서교추)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통합대책위원회(이하 통대위)에 등록한 교육감 후보중에서 조전혁 후보가 서교추가 바라는 교육감 추대 기준에 가장 부합하여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추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9월 11일 밝혔다.

서울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여 조희연이 서울시 교육감으로 3번 연속 당선되면서, 그동안 학교 교육에 미친 파괴적인 영향은 엄청났다.

조기 성애화, 동성애, 성전환 등의 왜곡된 성이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며, 민주시민교육 등을 통해 학교를 좌편향 정치단체의 활동무대로 만들었고,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혼란시켰으며, 편향된 인권논리로 교사와 학생관계가 무너져서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하는 등의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무너진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수많은 학부모들은 아스팔트위에서 외쳤고, 많은 교사들은 교실속에서 숨죽이며 고통을 받아왔다. 그런 가운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자녀들이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고통이 임계치에 달하면서, 서울 시민들의 힘으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수 있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부교육감과 간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직된 전교조 교사를 2018년 불법으로 복직시킨 것이 2021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서 고발되었고,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교육감의 지위를 상실했다. 이는 조희연 전 교육감이 편향된 이념으로 학교교육을 망친 전교조와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자녀들에게 행복한 교실을 돌려주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바르고 밝은 미래 회복을 바라는 서울시민의 뜻이 학교 교육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엄중한 시대적 명령이다. 그동안 몇차례 단일화과정의 실패를 지켜보면서, 후보 단일화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그동안 현장에서 수고해 온 단체들이 모여 서교추를 발족하게 된 것이다.

서교추가 조전혁 후보를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추대한 기준은 우선 학교 교육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고, 동성애와 성전환 등의 편향된 성 이념을 배격하며, 바른 인권과 교사와 학부모의 정당한 교육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학교안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전교조를 강력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서교추는 조전혁 후보를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추대하였지만 단일화 기구 등과 적극 협력하면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뜻을 같이하는 많은 단체와 힘을 합하여 단일화된 후보가 교육감 후보로 등록하여 서울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른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고 한다.

2024. 9. 11

서울시 교육감 후보 추대위원회

1.상임대표:김승규(기독문화연구소 대표)
공동대표:원성웅(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대표), 심하보(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

## 생명의 말씀

백 영 자 목사
• 교단 회계
• 직전 전국여교역자국장
• 전라지방회장
• 녹동순복음교회 담임

#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

(잠 22:29)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인정받고 높임 받습니다. '능숙하다'는 것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천한 대접받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에 능숙해야 합니다.

**첫째 말씀에 능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능숙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자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빌 3:8).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크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행 19:13). 요시야 왕 때는 무너지고 낡아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대하 34:18~19). 쓰레기를 치우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버려야 합니다. 의사에게는 태풍에 다친 사람의 숫자보다 피투성이가 된 환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아나서 밥을 삼킬 수 없어야 합니다. 영국의 에딘버러신학교는 성경 100구절을 암송하지 못하면 졸업을 시키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해 지려면 성경 말씀에 능숙해져야 합니다(행 17:11).

**둘째 기도에 능숙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총리의 권세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에 능숙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떨지 않고 능숙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단 6:10). 다니엘의 기도에 사자는 입도 벌리지 못했습니다(단 6:22). 고넬료는 이달리야 군대의 백부장으로 이방인이었지만 구제와 경건과 기도에 능숙했습니다(행 10:1~2). 고넬료의 기도는 구름을 뚫고 하늘 위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었습니다(행 10:4).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써 가장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목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가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보다 기도가 힘듭니다. 기도가 되면 목회도 됩니다.

후안까를로스 오르띠즈 목사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합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미숙한 사람의 기도는 뜯지도 않고 버려지는 쓰레기 취급을 당합니다(약 4:3).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서 무릎 꿇을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 세상에서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맨발로 울며 요단 강을 거슬러 피난을 갔습니다.

사울 왕의 친척 시므이가 요단 강 건너에서 다윗을 조롱하며 돌을 던졌습니다(삼하 16:13). 다윗은 울며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시 3:4~6). 다윗은 죄를 깨달았을 때에도(삼하 12:22) 병이 들어 고통스러울 때도 기도 드렸습니다(시 6:6). 다윗의 능숙한 기도는 모진 풍파를 이기고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하려면 기도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셋째 고난에 능숙해야 합니다.**

살아 있는 날 동안에 고난은 한 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능숙해졌으면 고난에도 능숙해야 합니다. 고난 당할 때마다 울고 넘어지면 안됩니다. 어금니를 꼭 깨물고 이겨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웠지만 죽을 때까지 고난이 따라 다녔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2~13). 사도 바울은 고난을 능숙하게 견딜 수 있는 일체의 방법을 예수님께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챨스 쉘던 목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썼습니다. 챨스 쉘던 목사는 어떤 일이 생기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팔을 가진 사람은 내 몸에 팔이 붙어 있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팔이 아프기 시작하면 내 몸에 팔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닥쳐도 느끼지 못합니다.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시 119:71).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려면 고난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고난에 능숙해지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고난에 능숙해지면 울고 싶을 때도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능숙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 새 역사 교과서, 바른 교육의 시작이 되기를

내년 신학기부터 사용될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여 선보였다(중학교 7종, 고등학교 9종) 교육부가 30일,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중에 역사 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결과적으로는 좌편향에서 조금은 돌아섰다는 평가이다.

일선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는 어제 · 오늘이 아니라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아예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한 탄핵으로 인하여 물러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불과 수일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검정교과서'로 바꾼 것이다. 거기에다 당시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까지 교과서에 실리는 일까지 있었다. 그래서 교과서가 아니라, '국정홍보용'이라는 비난도 있었다.

아무튼 이번에 새로 나온 교과서는 그런 불신을 약간은 불식시켰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멀어졌던 좌편향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편향성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는 국가의 정체성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런데 기존의 교과서에는 진보 · 좌파들이 사용하는 '민주주의'라고만 표기했었다.

둘째는 건국과 그 대통령에 대한 부정이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왕정 · 전제주의 국가였다. 국민은 왕의 지배를 받고, 왕을 위한 백성들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와서,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다. 이는 건국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셋째는 북한이 상투적으로 주장하는 일방적 내용을 표기한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내재적 접근'은 그들의 선전 · 선동에 불과한 것이다. 넷째는 6.25전쟁을 포함한 북한의 남침 행위와 북한 정권의 참상을 제대로 서술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간되는 7종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하여 7종이 서술하였다. 또 보수 정권의 경제 발전에 관하여 6종이, 천안함 폭침에 대하여 2종이 서술하였다. 반면에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은 1종만이, 또 북한의 지독한 3대 세습에 대해서는 한 곳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는 보수 정권의 공적(功績)은 무시하고, 진보 정권의 치적만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 확립, 6.25 남침의 절체절명에서 국난 극복, 근대화, 경제발전, 외교적.국제적 위상, 심지어 정치민주화 시작 등도 보수 정권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공'은 빼고, 오직 부정적인 것만 강조해 왔었다. 그런데 새로운 역사 교과서에서도 그런 측면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앞으로 만들어질 역사 교과서에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건국'과 보수 정권의 절대적인 '공'과 북한 체제의 잘못됨을 분명히 서술해야 한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이 탄생하고 유지되어 온 것이 이웃 나라의 큰 도움으로 된 것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넣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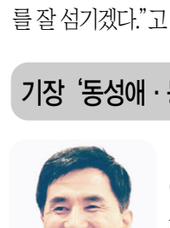
우리 역사 교과서는 정치적 지형에 따라 너무 많이 한쪽으로 쏠림현상을 가져왔다. 역사는 후대 사람들이 선대에 일어났던 것을 기록하는 것이니만큼, 가슴에 손을 얹고 바르게 기록해야 한다. 그래서 바른 역사를 기록하면 교육이 되고 교훈이 되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뒤집고 비틀면 역사의 큰 죄인이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어떤 공부보다도 바른 역사를 가르치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고, 자라나는 세대의 역사관과 인성을 함부로 도둑질 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를 담은 교과서는 공정과 진실적 서술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내년부터 사용될 새로운 교과서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충족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을 통하여 나타난 역사 교과서가 바른 역사 교육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 동정

### 예장개혁 총회장 정서영 목사



교단 통합 2년차를 맞이하는 예장개혁총회(통합 전 합동개혁-개혁)가 지난 9월 10일(화)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제109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서영 총회장의 연임을 가결했다. 정 총회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 명령을 따라 복음 전파의 중심에 서는 교단이 되자"고 전했다.

### 예장고신 정태진 신임 총회장

예장고신 제74회 정기총회가 지난 9월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원장 최승락 교수)에서 '선교: 일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요 20:21)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에서 총회장에 선출된 신임 총회장 정태진 목사는 취임사에서 "세워주셔서 감사하다. 총회를 잘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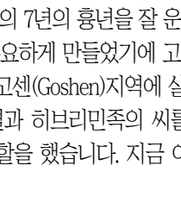
### 기장 '동성애 · 동성혼 반대' 서명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전상건 목사) 소속 '동성애 · 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환 목사 · 사진)'의 '동성애 · 동성혼 반대' 서명운동이 1천 명을 돌파했다. 김창환 목사(서울강서교회)는 지난 9월 10일(화) "9월 10일 기준 목사 290명, 장로 769명 등 440개 교회 1,05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총회 전까지 300여 명의 추가 동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윤성빈, 굿네이버스 나눔대사에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전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 선수를 나눔대사로 위촉했다. 지난 9월 9일(월)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진행된 위촉식에는 윤성빈 선수, 구동회 올댓스포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윤 선수는 2018년부터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 왔다.

## 목회단상



유 봉 수 목사
예하성 정책위 부위원장

# "국력을 손상시키는 아말렉과 송담을 제거하라"

창 41:34-36

나라가 흥하고 성하는 것은 한 사람의 특별한 지도자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글자를 모르는 백성을 불쌍히 여긴 세종대왕 한 분에 의해 한글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조대왕의 꿈으로 화성(華城)이 건설되었습니다. 조선 임진년, 정해년에 왜구가 침입하여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누가 나라를 구했습니까? 선조(宣祖)입니까? 그의 신하 윤두수, 대장 신립, 이일, 원균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이순신 장군 한 분이 왜구를 몰아내고 조선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를 경제대국의 대열에 진입하게 만든 것이 박정희 대통령 한 분의 영도력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부인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7년의 풍년과 그 후의 7년의 흉년을 잘 운영하여 애굽을 크게 부요하게 만들었기에 고향의 가족을 불러들여 고센(Goshen)지역에 살게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히브리민족의 씨를 키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 역시 요셉 같이 지혜롭고, 민족을 통일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모두 힘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이 시대의 탁월한 지도자가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탁월한 지도자는 국민에게 큰 꿈과 계획을 제시하는 자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정확하고 지혜롭게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최고 권력을 지닌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는 14년의 큰 계획을 작성하여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경제를 크게 부유케 하는 공로를 세우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의 가족들을 고센땅으로 초청하여 이스라엘민족을 태동케 하는 위대한 일을 이뤄냈습니다. 조선을 건국할 때에 정도전은 국가경영의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큰 그림(big picture)을 그렸습니다.

대한민국도 선량한 국민들이 힘을 모아 '나라의 불씨'를 만들어놨기에 오늘의 눈부신 경제, 군사, 외교의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근면한 국민들은 한 탁월한 지도자가 큰 그림을 그리고 제시한다면 예를 들면, 바다 탐사, 우주 개발 등을 계획한다면 - 온 역량을 다해 그 정권을 뜨겁게 지지하고 협조할 것입니다. 한국인은 하고자 하면 기필코 해내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탁월한 지도자는 국력을 손상시키는 아말렉과 송담을 제거하는 자입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아말렉(영어: Amalekites)은 여러 장소에 퍼져있는 공산주의세력입니다. 지난날 공산주의 혁명으로 소련의 스탈린은 자기 동족 450만 명을, 중국의 모택동은 300만 명 이상을 잔인하게 학살했으며, 저 북한의 김일성은 350만 명의 인민이 굶어죽는 최악의 극빈국가를 만들었음에도, 그런 역사의 암덩어리,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찬양하는 자들이야 말로 우리가 청산해야하는 아말렉입니다.

또한 '송담'이란 소나무(松)를 칭칭 휘감아서 수액을 빨아먹고 결국 죽게 만드는 기생담쟁이덩굴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국력을 빨아먹는 송담은 무엇일까요? 한 나라의 수장(首長)이 되었음에도 자국의 재산을 국민을 위협하는 적에게 퍼주어서 결국 적국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낸 자와 그의 추종자들이 우리가 제거해야 할 송담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해버린 공산주의의 의도대로 하나가 되는 통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통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에 의한 통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안에서의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계에서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 WCC 등의 이단들이 우리가 쓸어버려야 할 송담입니다.

**셋째, 탁월한 지도자는 이 시대의 당면한 과제, 통일을 이루는 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뜨겁게 불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지금 70대 이상의 국민들 대부분은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시절 이 노래를 목청을 높여 불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통일론(統一論)이 있습니다. 무조건적 통일, 환상적 통일, 준비 없는 통일, 그리고 공산주의로 하나 되는 통일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해버린 공산주의의 의도대로 하나가 되는 통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통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에 의한 통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안에서의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통일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디아스포라(영어: diaspora)는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로마의 디도(Titus) 장군의 말발굽에 짓밟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유대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에 비해, '알리야'(영어: Aliyah)란 하나님의 때에, 즉 예수 재림의 날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의 땅인 에레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은 많은 재물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그 행렬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한국판 알리야'가 꿈틀거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6.25 전쟁 때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견디다 못 해 평양을 비롯한 이북 여러 도시에서 보따리를 싸서 이남의 각처로 흩어졌던 이 땅의 디아스포라들이 고난을 이겨내며 2, 3대에 걸쳐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제 그 디아스포라들은 옛적 거룩한 성령의 불이 타오르던 평양 등의 고향으로 돌아갈 '알리야'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이북 피난민들은 다시 평양으로, 마치 하나님의 자석에 이끌리듯 이 땅의 디아스포라들은 알리야의 자리로 부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무릎 꿇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찬양합시다!

# 월례회 개최하고 말씀 중심의 사역 다짐

##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김상운 목사)는 지난 9월 2일(월) 오전 11시 익산성광순복음교회(김상운 목사 시무)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1부 예배는 김선여 권사(익산성광순복음교회)의 찬양인도와 통성기도 후 지방회 총무 김희수 목사(익산순복음제일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전임회장 최병진 목사(익산은혜와진리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겔 8:1~4 말씀을 본문으로 '에스겔의 4가지 환상'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며 우리들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겼는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임회장 표재옥 목사(성령알곡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의는 지방회장 김상운 목사(익산성광순복음교회)의 인도로 회원점명과 보고사항과 안건토의를 마치고 구봉숙 목사 뇌동맥류 시술을 위해 2일~7일까지 인도네시아 단기선교를 떠난 정종승 목사 부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지방회장 김상운 목사의 마무리 기도로 월례회를 마친 후 지방회원들은 오찬을 함께 한 후 코코밀 카페로 이동해 빵과 차로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교제를 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

##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이문근 목사)는 지난 9월 9일(월) 주는교회(담임 강원석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조숙희 목사(주품에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김진호 목사(진라와사랑의교회)의 대표기도, 강원석 목사(주는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강 목사는 신 32:10 말씀을 본문으로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철저하고 세심하게 지켜주시는지 본인의 간증을 곁들여 전했다.

강 목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가라"고 권면했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이문근 목사의 인도로 각종 보고사항을 유인물대로 전달한 후, 토의시간을 통해 지방회 송년 여행은 당일코스로 다녀오기로 하고, 지방회 한마음 체육대회는 10월 28일(월) 갖기로 했다.

끝으로 지방회 환우 목회자들 가정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한 후 회의를 마치고 주는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 충성된 용사들의 사랑을 본받는 목회자가 되자

##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효신 목사)는 지난 9월 10일(화) 선한순복음교회(담임 김은숙 목사)에서 9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서기 강신홍 목사의 찬양 인도에 이어 총무 서성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배길선 목사의 기도와 사회자의 성경봉독, 그리고 사모 중창단의 특송 후에 회계 김진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삼하 23:13-17 말씀을 본문으로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핏값'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아둘람 굴에서 심한 갈증을 느끼고 베들레헴 성문 곁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했다. 이때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들어가 물을 길어 왔는데, 다윗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고 가져온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처럼 세 용사는 다윗을 귀히 여기고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으며, 다윗 또한 용사들이 가져온 물이 피와 같은 물이었기에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렸다. 여기서 다윗과 세 용사의 아름다운 사랑을 볼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충성된 용사들의 사랑을 본받는 목회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 서성영 목사의 나라와 교단과 지방회와 치료를 위한 중보기도 후에 박서현 목사의 헌금기도와 김진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김효신 목사의 인도로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선한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오찬과 들깨가루를 선물로 받고, 인근 카페에서 교제를 나눈 후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목회 다짐

## 경기남서지방회

경기남서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9월 9일(월) 오전 11시 헐몬산교회(담임 김남순 목사)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광우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부회장 김남순 목사의 찬양인도, 표헌자 목사(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의 대표기도, 이광우 목사(순복음새생명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요 13:34 말씀을 본문으로 '서로 사랑하자'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베푸는 사랑을 해야 하며, 행함에 진실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먼저 희생(십자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해주셨으니 우리는 이웃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랑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미경 목사(순복음동방의빛교회)의 나라와 민족, 교단과 지방회, 개교회와 교역자를 위한 중보기도 인도로 함께 통성기도를 드리고 이원정 목사(다메섹교회)의 헌금 기도, 김기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회원 점명과 안건 제의 및 토론을 거쳐 생일을 맞이한 이규호 목사가 섬겨준 점심 식사와 교제를 마친 후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 월례회 및 양의문교회 전입예배

##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문찬우 목사)는 지난 9월 10일(화) 오전 10시 30분 양의문교회(담임 박승호 목사)에서 월례회 및 교회 전입예배를 드리고 양의문교회의 경기북지방회 전입을 환영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전임지방회장 김장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박응진 전도사, 이상숙 전도사의 찬양인도, 전임지방회장 육준수 목사의 대표기도, 김장수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문찬우 목사의 히 11:31-3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온전한 드림' 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총무 · 서기 전한배 목사의 헌금기도, 전임지방회장 탁정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문찬우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지방회 총무 · 서기 전한배 목사의 회원점명과 총무 · 서기보고, 재무 박태균 목사의 재정보고 후, 강인덕 목사의 폐회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후 지방회원들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 아산시지도자협의회 제9차 기도회 및 간담회

# 혼란한 시대 교회가 하나 되어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워야

### 국가의 안보와 대통령을 위해, 부정선거 대책 마련, 지역 균형발전 위해 기도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아산시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제9차 나라와 민족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도회 및 간담회를 지난 9월 3일(화) 오후 5시 택민교회(담임 이정팔 목사)에서 개최하고 균형잡힌 지역발전과 국가의 안보 국민화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합심하여 기도했다.

1부 예배는 상임회장 박노섭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상임회장 홍석용 목사의 기도, 부회장 한선희 목사의 성경봉독, 고문 강상철 목사의 설교, 상임회장 임용석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강 목사는 잠 25:13 말씀을 본문으로 '충성된 사자'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국가가 혼란한 시대에 오늘의 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여 지도자들이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워 갈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예배 후 곧바로 2부 인사 및 보고회로 이어졌다. 상임회장 황창익 목사의 사회로 열린 2부 순서에서는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예하성 전임총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진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세계적인 정세가 어수선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 나라와 민족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산시기독교지도자와 함께 더욱 기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회원들에게 환영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명수 자문위원(전 국회의원)의 축사를 통해 아산시 기독교지도자 협의회 목사님들께서 나라의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세계정세는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나라는 아산시 지도자목사님들의 변함없는 기도가 있어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했다, 전 나성 감독 신상우 목사의 격려사, 충남기독교총연합회장 박귀환 상임대표의 충기총연 공지사항 및 인사말씀이 있었으며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 김영석 자문위원과 국민의힘 아산을 지구당 위원장 전만권 자문위원의 인사말씀 순으로 2부 순서를 마쳤다.

곧바로 이어진 3부 기도회는 전 아기연 대표회장 조이철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상임회장 이정팔 목사의 '나라와 민족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상임회장 김병완 목사의 '아산시발전과 박경귀 아산시장을 위하여', 공동회장 서석웅 목사의 '전쟁종식과 국가안보를 위하여', 여교역자 대표 임인순 목사의 '부정선거 방지와 선관위 개혁을 위하여' 각각 주제별기도를 인도한 후 간담회를 갖고 만찬을 함께 나누고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 제12차 전국사모회 실행위원회 개최

# 제12차 전국사모회 단합대회 준비상황 점검

**10월 21일-23일**

전국사모회(회장 이을순 사모)는 지난 9월 12일(목) 오후 12시 30분 총회본부에서 제12차 전국사모회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하는 한편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과 전원성전, 제부도, 대부도 등지에서 10월 21일(월)부터 2박 3일간 열리는 제12차 전국사모회 단합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을순 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손선희 수석부회장의 기도, 김재희 서기의 성경봉독, 직전총회장 김병묵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잠 31:10 말씀을 본문으로 '현숙한 여인' 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사회와 국가를 만들며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그런 가정은 지상 낙원이 될 것이다. 서로 서로 하나님 은총의 선물로 여기며,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가운데, 현숙한 여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

이어 최윤정 재무의 헌금기도, 김세희 총무의 광고, 김병묵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곧바로 이어진 회의는 회장 이을순 사모 주재로 서기 김재희 사모의 회원점명 후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10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과 전원성전, 제부도, 대부도에서 열리는 제12차 전국사모회 단합대회 준비를 위해 세부적인 준비사항을 나누어 전달하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2024 여교역자국 추계수련회 및 야유회

|일시| 2024년 9월 26일(목) ~ 9월 28일(토) 2박 3일

|장소| **부산 순복음주찬미교회 외 2개 교회**

부산 순복음주찬미교회(담임 윤혜영 목사)
부산 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호
(051-867-1615)

|참석대상| 전국여교역자

|문 의| 재정부장 최정희 목사 (010-7592-5575)
행정부장 김찬애 목사 (010-3568-2384)

|참 가 비| 2만원

|계좌번호| 농협 356-1626-0870-93(조영란)

국장 조영란 목사
탄현벧엘교회

### 모시는 글

존경하는 교단산하 여교역자 회원 여러분!

폭염의 뜨거움처럼 세상이 반성경적세계관, 반기독교관으로 물들어 가는 암울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성경적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여 이 어두운 시대에 등불을 밝히려는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산하에서 부르심의 소명 따라 목양지를 섬김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외롭고 험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넉넉히 이기며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단을 지키는 여교역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24여교역자 수련회 및 야유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여교역자국 수련회가 기도의 삼겹줄로 하나 되어 목양의 고통을 나누고 기도하며 교제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고자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증거 되고 사랑의 수고가 풍성하여 위로의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의 인내가 진리로 굳건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함께함이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여교역자국 국장 조영란 목사 올림**

### 2024년 추계수련회 및 야유회 일정표

| | 26일(목) | 27일(금) | 28일(토) |
|---|---|---|---|
| 06:30<br>07:30 | 부산 주찬미 교회를 향하여 | Q.T<br>말씀의 떡을 떼며 | Q.T<br>말씀의 떡을 떼며 |
| 08:00 | | 아침식사 | 아침식사 |
| 09:00 | | 부산투어<br>하나됨과 위로의 시간들~ | 폐회예배<br>사회:안선자 목사<br>기도:이복순 목사<br>설교:백영자 목사<br>헌금기도:김종애 목사<br>장소:세움교회 |
| 10:00<br>11:00 | | | |
| 12:00<br>~<br>13:30 | | 점심식사 | |
| 14:00 | | 부산투어로 교제의 즐거움을 | |
| 15:00 | 등록 | | |
| 16:00<br>~ | 개회예배<br>사회:조병희 목사<br>기도:이인호 부총회장<br>설교:김영준 총회장<br>권면:한순남 목사<br>축사:탁정신 목사<br>헌금기도:최정희 목사<br>장소:주찬미교회/윤혜영 목사 | | 목양지로 |
| 18:00<br>~<br>19:00 | 저녁식사 | 저녁식사 | |
| 20:00<br>~<br>22:00 | WORKSHOP<br>진행:조은혜 목사<br>(글로벌미션교회) | 저녁집회<br>사회:김찬애 목사<br>기도:황연선 목사<br>설교:정부용 목사 | |
| 이후 | 숙소로~<br>단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 | |

**장소로 섬겨주신 부산지방회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역에서 교회까지 셔틀 차량 운행**

* 여러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김영준 목사
갈릴리큰소망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벧엘교회

자문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전임국장 탁정신 목사
온선교회

직전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국장 조영란 목사
탄현벧엘교회

### 조직

#### 임원단

예배부장 기장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복지부장 진리와사랑교회 이복순 목사

봉사부장 군업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홍보부장 대전대화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재정부장 성광교회 최정희 목사

행정부장 추계교회 김찬애 목사

행사부장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이명순 목사

친교부장 순복음은혜와사랑의교회 조은혜 목사

#### 전국지부장

서울중앙지방회 예수향기교회 정에스더 목사

서울중부지방회 은천교회 정해란 목사

서울강남지방회 순복음사랑교회 이현옥 목사

서울남서지방회 주사랑 순복음교회 이주안 목사

경기지방회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금자 목사

경기중앙지방회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경기남서지방회 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 표헌자 목사

경기북지방회 예수사랑교회 예정희 목사

경기남지방회 반석샘물교회 배길선 목사

일산지방회 늘행복한교회 신중임 목사

대전지방회 새로와지는교회 김희자 목사

충북지방회 은혜서원교회 장성미 목사

충남지방회 예수사랑교회 한정숙 목사

청주지방회 행복한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경남지방회 순복음 사랑의교회 최명애 목사

영남동지방회 순복음은혜교회 이순애 목사

부산지방회 순복음북있는교회 황연선 목사

광주지방회 은혜의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호남지방회 순복음예찬교회 홍광희 목사

은진지방회 은혜와진리교회 심연숙 전도사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국장 조영란 목사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제12차 전국사모회단합대회

## 주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모들이여, 일어서라!"(단 10:11)

강사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김영준 목사
갈릴리큰소망교회

### 모시는 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폭염으로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사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시는
존경하는 사모님들!
심신의 휴식과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제12차 전국사모회 단합대회에 사모님들을 초대합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모들이여, 일어서라!"(단 10:11)라는
주제로 준비한 은혜의 자리에,
전국의 예하성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 주의 사랑으로
친교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힘을 얻고, 합심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님들의 기도 후원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사모회 회장 이을순 -**

일자 | 2024년 10월 21일(월) 오후 2시등록, 3시 시작 ~ 23일(수) 오전 10:30

***개회예배는 첫날인 10월 21일(월) 오후 1시 30분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1층 아가페성전에서 드립니다. 예배 후 교회버스를 이용하여 전원성전으로 이동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10월 21일 월요일 낮12시에서 오후1시 10분 사이에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맞은편의 "양촌리"에서 '예하성사모회' 이름으로 식사하세요(마지막 주문은 12시 50분 마감).
2. 식사 후 1시 20분까지 안양성전 1층 '아가페성전'으로 오시면 됩니다(예배 후 교회버스를 이용하여 함께 전원성전으로 이동합니다. 자차이동도 가능).

장소 |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031-227-599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120 (왕림2길 76)

대상 | 교단 산하 전국 교회 목회자 사모

후원계좌 | 농협 352-2197-4294-03 (최윤정)

문의 | 총무 김세희 사모(010-2610-3816)

## 2024 전국사모회 전임회장단

고문

최해선 사모
기흥순복음교회

고문

김양숙 사모
은혜와진리교회

회장

이을순 사모
갈릴리큰소망교회

전임회장

김양란 사모
포항안디옥교회

전임회장

차경애 사모
진주은평교회

전임회장

신동신 사모

전임회장

차추련 사모
안동성곡교회

전임회장

윤금자 사모
목양제일교회

전임회장

김귀순 사모
아세아순복음교회

직전회장

**감사** 신명희 사모
부강순복음교회

## 2024 전국사모회 임원진

수석부회장

손선희 사모
홍제은혜교회

제1부회장

손정희 사모
확핀교회

제2부회장

최인석 사모
부산갈릴리교회

총무

김세희 사모
괴산순복음교회

부총무

박미용 사모
순복음한마음교회

서기

김재희 사모
색종이교회

부서기

김길순 사모
순복음성산교회

회계

나명숙 사모
상주반석교회

부회계

이순선 사모
시온순복음교회

재무

최윤정 사모
언양순복음교회

## 제12차 전국사모회단합대회 일정표

| | 첫째날 | 둘째날 | 셋째날 |
|---|---|---|---|
| 08:00~09:00 | | 아침식사 | 아침식사 |
| 09:00~10:00 | | 신앙유산탐방 (제암교회 3·1운동순국기념관) | 찬양 |
| 10:00~11:00 | | 제부도 투어 (서해랑 케이블카) | 폐회예배 (전직총회장 김인찬목사) |
| 11:00~12:00 | | | |
| 12:00~13:10 | 점심식사('양촌리' 안양성전 맞은편) | 점심식사 | |
| 13:30~14:30 | 개회예배(안양성전) 정책위원장 조용목목사 | | |
| 14:30~15:00 | 전원성전으로 이동 | 수목원 산책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 | |
| 15:00~16:00 | 등록,방배정 | | |
| 16:00~17:00 | O.T, 지방회소개, Ice Breaking (서울남서 조규성목사) | | |
| 17:00~18:00 | | 저녁식사 | |
| 18:00~19:30 | 저녁식사 및 휴식 | 휴식 | |
| 19:30~21:00 | 기도회 (교단총회장 김영준목사) | 조별 나눔 | |

ASSEMBLIES OF GOD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회**
**후원 : 총회 및 각 지방회**

##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 선한 마음이 역사를 바꾼다

얼마 전 NTD KOREA TV에 소개된 아이젠하워의 선한 마음이 역사를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세계 제 2차 대전이 한창이던 어느 날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은 긴급 군사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프랑스 어느 지역에서 차를 타고 총본부로 가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휘날리는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어느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을 지나던 중 아이젠하워는 길가에 앉아 추위에 떨고 있는 한 노부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차를 세우고 통역관에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동행했던 참모는 "장군님, 회의에 참석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이 일은 이곳 경찰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며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다가는 저분들이 동사할지도 모르네"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통역관이 차에서 내려 노부부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노부부는 파리에 사는 아들을 찾아가던 중 자동차가 고장났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이젠하워는 망설임 없이 그들을 차에 오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노부부가 사는 곳부터 들러 그들을 내려주고 나서 총본부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연합군이 수집한 정보를 살피던 아이젠하워의 수행원과 당시 길을 재촉했던 참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총본부로 움직이던 그 날, 독일 나치군의 저격수 일행이 움직일 거라 예상된 경로에 매복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암살이 성공할 거라 확신했던 히틀러로서는 이런 변수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아이젠하워는 선한 마음 덕분에 암살을 피할 수 있었으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2차 세계대전의 역사가 아마 달라졌을 거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이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이처럼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 그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만 그 일로 더 큰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들려주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히 13:16)

##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 그 분은 누구?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 1:1 말씀을 마음에 새긴 그날부터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네.

그분은
언제나 내 앞에 계셨고
내 옆에 계셨고 내 뒤에 계셨고
내 안에 계신 분이었네.

그렇게 그분은
내 안에서 역사하며
나를 책망했고 위로하며
소망으로 인도하는
나의 참 목자가 되시었네.

〈말씀 앞에 서면〉을 쓸 때
야곱처럼 발꿈치 잡고
나온 쌍둥이 글이다.

## 사 설

#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정치학자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희한하게도 히틀러, 스탈린, 시진핑, 푸틴의 수법을 따라 하는듯하다고 말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것이 '큰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는 수법이다. 그 수법이 통했기에 그들은 이 수법을 자주 사용해서 국민들을 속여 왔던 것이다.

속이는 자가 나쁘지만 속는 자도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속이는 것이 먹혀들기 때문에 계속 속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지금 정치판에서는 갑자기 계엄 선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엄몰이를 하고 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래서 계엄령 시즌2라고 말들을 하고 있다.

계엄령 시즌1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벌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계엄령시즌1은 완전 거짓말이었고 나라를 혼돈속으로 몰아넣었지만, 수 백 명 사람들을 다 그쳐 댔지만 단 한 사람도 기소도 못한 것이 문재인 시절의 계엄령 시즌1이었다.

그런데 지금 계엄령 시즌2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왜 황당한 일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먹혀들고 그들이 환호하기 때문이다. 만일 계엄령을 선포한다면 어느 군인이 따르고 어느 국민이 박수를 쳐댈까.

192석의 거대 야당이 계엄령 해제를 결의하면 순식간에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는 헌법이 있는 데 어느 미련통이 대통령이, 어느 미련통이 참모들이 계엄령을 선포하자고 할까? 그런 정부라면 계엄령 해제와 더불어 순식간에 그 정부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정치권에서 난무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그렇게 쉽게 보고, 가볍게 보고, 무시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저질 사고가 이런 일들을 자꾸만 양산해 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정혜전 대변인은 말하기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등은 또다시 괴담을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설'을 계속 유포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1일 한동훈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계엄 이야기가 나온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으려 계엄과 동시에 의원들을 체포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모두 발언에서 한 말이다. 가능할까?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일인데 그리고 무려 42명에 해당하는 의원들을 체포해야 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무슨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일까. 황당한 이야기인데도 계속적으로 유포를 하고 있다.

큰 거짓말은 히틀러의 나치가 써먹은 대표적인 대중기만 수법이다. 히틀러의 부하 괴벨스는 말하기를 '큰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면 진실이 된다'고 하면서 큰 거짓말을 유포해서 당시의 독일 국민들을 선전 선동했다.

세월이 지나고 훗날에야 독일 국민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나라를 망친 그들을 비판하고 법정에 세우고 사형 등 단죄를 했던 것이다. 처음부터 속지 말아야 하는데... 히틀러도 그의 자서전 '나의 투쟁'에서 말하기를 '큰 거짓말은 대중이 믿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돼 먹은 자들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광우병, 청와대 굿, 사드 등으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골병들게 한 사람들....

이들이 이번에는 또 '후쿠시마 오염수'로 윤석열 대통령을 잡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옹호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오염수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미국, 캐나다는 왜 아무런 말이 없을까? 그들이 바보라서? 우리보다 미개한 국민이라서?

이제는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계엄령 선포설 같은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계엄령 선포를 믿을 사람들이 우리 국민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괴담과 유언비어를 날조하면서 퍼뜨리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의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제보는 상상력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근거가 없다는 말을 그렇게 에둘러서 한 말이다.

실체는 물론 없고 근거도 제시 못하면서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계엄령 선포설만 유포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그렇게 아무 말 잔치에 넘어갈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 제발 민생에 집중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15-20)


##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한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5학년도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 학 과 | 수업연한 | 지원자격 |
|---|---|---|
| 신학과 (신입생) | 3년 6학기 (140학점) |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br>2. 소명의식이 있는 자<br>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
| 신학과 (편입생) | 2년 4학기 |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br>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http://gd.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5학년도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문의처 : 02)2678-5181 FAX: 031)944-5181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http://gd.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 학 과 | 과정 | 수업연한 | 지원자격 |
|---|---|---|---|
| 목회학과 |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 3학차 |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br>•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br>•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br>•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 서 접 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6.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http://gd.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 한기총, 한교총이 제안한 합의문 부결

## 한기총 제35-5차 임원회서 '일방적 문건' 강력 반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는 5일(목) 오전 1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35-5차 임원회를 열고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에서 제안해 온 통합 관련 합의문을 부결시켰다.

회의는 참석 26명, 위임 3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며,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통합추진위원회는 8월 22일에 한교총에서 보내온 '기관통합 논의에 관한 건'의 공문에 포함된 연합기관 통합 합의문(안)을 임원회에 상정했고, 임원들은 "통합의 당사자인 한기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문건"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난 회기 임원회에서 한교총 정관을 검토, 조정하기로 했으나, 합의문에는 여전히 한교총 정관과 제 규정을 사용한다는 점, △한기총, 한교총의 공동대표회장이 아닌 한교총 인사의 단독대표인 것과 의결 시 동수일 때는 장종현 목사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 △한기총의 정강정책에도 맞지 않는 ncck 소속 교단이 한교총에 있는 점, △합의안의 가부를 회신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3대 종단(기독교, 불교, 천주교)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만남을 가진 점' 등,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했고, "이는 한기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까지 하며 합의문을 부결시켰다.

임원들은 한교총에서 보내온 합의문이 양측 통합추진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인지를 질의했고,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는 "협의된 것이 아닌, 한교총에서 제안한 안"이라고 했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통합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통합에 대한 한기총의 안을 새롭게 만들어 한교총에 보낼 것"이라며, "통합은 모두의 열망이자 소망이다. 계속해서 논의하다보면 언젠가 통합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 세기총, '한반도 평화메달' 수여식

## 튀르키예 참전 용사에게 메달 전하며 감사의 마음 전해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이하 세기총)는 튀르키예 6·25 참전용사를 찾아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반도 평화메달' 수여식을 진행했다.

세기총은 지난 8월 19일 월요일 오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살고 있는 3명의 6·25 참전용사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반도 평화메달'을 수여하고 감사장과 함께 금일봉과 선물을 각각 전달했다.

'한반도 평화메달'은 6·25 한국전쟁의 상징이자 한반도 분단의 현장인 DMZ 녹슨 철조망과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넋이 깃들어 있는 전쟁 당시에 사용됐던 탄피 등을 녹여 제작했다. 메달의 목걸이는 한국전쟁 당시 남북 양측 참전국과 전후 대한민국 복구사업을 지원했던 국가들의 국기를 이미지화하여 전쟁당사자들 간의 화해와 평화를 기원함과 동시에 전후 지원국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세기총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제3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세기총 튀르키예 지회장 이시몬 목사 등이 참석했다.

세기총은 튀르키예 참전용사인 알리 세림(ALI SERIM, 1932년 3월 10일생) 씨와 하산 이을마즈(HASAN YILMAZ 1929년 9월 1일생) 씨, 그리고 하산 메르겐(HASAN MERGEN 1931년 7월 1일생) 씨 등이 살고 있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큰절을 올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가 '한반도 평화 메달'을 일일이 목에 걸어드렸다.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는 "튀르키예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오늘날 한국 경제의 발전과 민주주의 확립의 기반이 됐다"라며, "한국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700만 한국인 디아스포라 모두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인사했다.

# 예장 보수합동 이광용 목사 총회장에 재추대

## 제109회 총회 정통 보수개혁 수호 다짐

보수개혁주의 장로교 정통 신학을 수호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보수합동측이 지난 9월 11일(수) 서울 상암동 총회본부에서 제109회 총회를 열고, 이광용 목사를 총회장에 재추대하는 한편, 시대의 개혁을 위한 공교회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총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교회 부흥의 기반이 된 새벽기도가 근래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며, 올 한 회기 전 교회를 대상으로 새벽기도 회복운동과 성경보기 운동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 뿐 아니라 여전히 한국교회 내 논란이 끊이지 않는 WCC, 성경 문서설 등의 잘못된 신앙관을 단호히 배격하는 한편,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을 부정하는 다원주의, 혼합주의 등의 반기독교 사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한 회기도 총회원의 올바른 신앙생활 영위를 위한 '바른교회, 바른신앙, 바른성경' 세미나를 분기별로 개최키로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 선교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한 이광용 총회장이 직접 나서 목회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장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광용 총회장은 "한국교회 위기의 바탕에는 무너진 신앙, 정체된 신학, 세속화된 목회가 있다"며 "우리 총회는 장로교의 기본 정체성인 보수개혁주의에 기반해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올곧은 목소리로 교회와 세상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사명자적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수합동측은 제109회기 신임원은 △총회장 이광용 목사 △부총회장 유자현 목사, 김상돈 장로 △서기 김영복 목사 △부서기 모성춘 목사 △회의록서기 이생명 목사 △부회의록서기 오영호 목사 △회계 이상현 목사 △부회계 정규연 목사 △총무 최명철 목사 등이다. 교단직영신학교의 이사장은 이광용 목사, 학장은 조요한 목사가 맡고 있다.

총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최명철 목사의 대표기도와 연합방송노회의 특송 후 이광용 목사가 '살았으나 죽은자들'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예장정통 창립60주년

##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 60차 정기총회

양정섭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는 지난 9월 9일(월) 합동측 박복경 목사에 의하여 창립된지 60주년을 맞이하여 평안교회에서 1부 창립기념예배와 2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부 예배는 상임총무 임정태 목사의 사회로 경기노회장 민경구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총회장 양정섭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양 목사는 삼상 7:12-14 말씀을 본문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먼저 "60년 동안 정통총회를 통하여 교역자로, 세계 여러 곳에 선교사로, 일터에서, 각종 공동체에서, 이웃에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역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설교 후에는 서부노회장 전대식 목사가 제60차 정기총회를 위한 특별기도를 하고 양정섭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정기총회에서는 이영숙 목사(부서기)의 기도, 전대식 목사(서기)의 총대보고에 이어 양정섭 목사(총회장)가 정족수가 되므로 개회를 선포했다. 각종 회무를 처리한 후 임원선거에서는 총회장 양정섭 목사가 유임되고, 민경구 목사, 양성은 목사, 한성옥 목사가 부총회장으로 유임되고, 상임총무 임정태 목사, 총무 임세준 목사, 서기 전대식 목사, 부서기 이영숙 목사, 회의록서기 최은희 목사, 부회의록서기 김재희 목사, 회계 김영의 목사, 부회계 김병섭 목사가 유임되고, 감사 권순용 목사가 유임되고, 감사 강대하 목사가 선출되었다.

# 국제마약대학교, 한반도 통일 기도회 개최

## 자유 · 평화 · 통일 위해 기도, 마약퇴치 캠페인도 가져

국제마약대학교(총장 양창부 박사)가 주최한 '한반도 통일 기도회'와 '마약퇴치를 위한 캠페인'이 지난 8월 29일(목) 오전 10시 중서부 전선 태풍전망대에서 열려 국가의 안위와 자유 · 평화 · 통일을 위한 기도 및 마약 없는 대한민국 위한 캠페인을 대대로 펼쳤다.

행정처장 윤승권 박사의 사회로 시작된 기도회는 김용실 교수의 특송, 염영숙 단장의 찬양율동, 임근원 목사의 헌금을 위한 봉헌특송, 학생처장 강말희 목사의 봉헌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장소를 옮겨가며 한반도 평화와 자유통일을 위해 그리고 마약퇴치를 위해 기도한 회원들의 염원에 8월 막바지 불볕더위도 기승을 부리지 못했다. 이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권경환 목사가, '통일과 북방 복음화를 위하여' 박마리 목사가, '국제마약경찰대학교를 위하여' 박문수 목사가, '경제와 교회 부흥을 위하여' 윤영옥 목사가 기도를 인도한 후 참석자 모두가 통성으로 기도했다.

총장 양창부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각종 불법과 사회 전방위에 퍼져있는 마약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벧전 3:8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월드비전-보건복지부, 협약 체결

## '가족돌봄청(소)년 발굴 및 지원사업'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지난 8월 30일(금) 보건복지부와 '가족돌봄청(소)년 통합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 1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가족돌봄청(소)년을 발굴하고 민관의 유기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민관공동체계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가족 돌봄 청(소)년은 질병이나 장애 등을 가진 가족을 직접 돌보는 청(소)년(청소년기본법상 9~24세)을 의미하며 이른바 '영케어러'라고도 불린다. 이들은 주당 평균 21.6시간(보건복지부 2022)의 돌봄을 수행하며 생계와 가사노동을 책임지고 있어 심리적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가족돌봄청(소)년은 사회 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지원체계 등이 미비한 상황이며, 이들 스스로 자신이 가족돌봄청(소)년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월드비전과 보건복지부는 상호 협력해 대상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함께 지원하는 민관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를 연속해서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이 돌봄의 무게를 내려놓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예성 전장연, 제52회 전국대회 개최

## '다시 성결의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장로회전국연합회(회장 김종현 장로)가 제52회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다시 성결의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8월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1박 2일 간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교단 산하 40개 교회에 15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개회예배 및 개회식으로 시작된 첫째날에는 전도특강(제주열방대학 전도팀장 박복남 장로), 건강특강(내과 전문의 서영탁 장로), 사중복음 특강(삼성교회 김영택 목사), 기도회가 있었고, 둘째날에는 아침식사를 마친 후 간증, 폐회예배, 경품추첨 시간 순으로 일정이 이뤄졌다.

한편, 첫째날 준비위원장 황제돈 장로의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 및 개회식에서는 대회기 및 순서자 입장, 대회장인 김종현 장로의 개회선언, 명예대회장 박정식 장로의 기도, 서기 차천용 장로의 성경봉독과 예성 장로합창단의 특별찬양 후 총회장 김만수 목사가 "다시 성결의 복음으로"(벧전 1:16)라는 제목으로 참석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 총회와 지교회 부흥, 장로회 발전과 전국교회를 위한 특별기도, 영상 상영과 대회장 인사, 소프라노 이예규 집사의 특송과 부총회장 홍사진 목사, 성결대 김상식 총장, 부총회장 이천 장로의 격려사가 있었다.

# 제24회 부흥사를 위한 부흥성회 개최

## 세복협 주최로 부흥의 새로운 비전 세워

(사)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이사장 이규학 감독, 총재 엄기호 목사, 대표회장 차장현 목사)가 지난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에서 '제24회 부흥사를 위한 부흥성회'를 열었다.

한국교회 부흥사들의 쉼과 영적 충전을 위해 개최한 이번 성회는 지난 1988년 제1회를 시작한 이래, 한국교회의 기라성 같은 부흥사들을 배출한 대표 연수 집회로 발전해 왔다. 올해 부흥성회 역시 지난해에 이어 약 90여 명의 부흥사들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뤘다. 첫 날 개회예배는 김영신 목사(공동회장)의 사회로, 김수읍 목사(부총재)의 기도에 이어 총재 엄기호 목사가 '한배 탄 사람들'이란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엄기호 목사는 민족복음화, 세계선교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전력하는 선교 공동체가 될 것을 강력히 권면했다.

엄 목사는 "우리는 선교라는 한배에 탄 사람들이다. 한배 탄 사람들은 방향이 같아야 되고 목적과 생각, 꿈도 같아야 한다"라며,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이 배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영력향상 세미나에서는 오종설 목사(상임회장)가 '오직 성령으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영력향상부흥회'로 열린 저녁성회에서는 이사장 이규학 감독이 '모세의 삶'에 대해 강의했다.

## 생명의 말씀

백 영 자 목사
• 교단 회계
• 직전 전국여교역자국장
• 전라지방회장
• 녹동순복음교회 담임

#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

(잠 22:29)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인정받고 높임 받습니다. '능숙하다'는 것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천한 대접받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에 능숙해야 합니다.

**첫째 말씀에 능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능숙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자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빌 3:8).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크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행 19:13). 요시야 왕 때는 무너지고 낡아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대하 34:18~19). 쓰레기를 치우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버려야 합니다. 의사에게는 태풍에 다친 사람의 숫자보다 피투성이가 된 환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아나서 밥을 삼킬 수 없어야 합니다. 영국의 에딘버러신학교는 성경 100구절을 암송하지 못하면 졸업을 시키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해 지려면 성경 말씀에 능숙해져야 합니다(행 17:11).

**둘째 기도에 능숙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총리의 권세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에 능숙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떨지 않고 능숙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단 6:10). 다니엘의 기도에 사자는 입도 벌리지 못했습니다(단 6:22). 고넬료는 이달리야 군대의 백부장으로 이방인이었지만 구제와 경건과 기도에 능숙했습니다(행 10:1~2). 고넬료의 기도는 구름을 뚫고 하늘 위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었습니다(행 10:4).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써 가장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목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가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보다 기도가 힘듭니다. 기도가 되면 목회도 됩니다.

후안까를로스 오르띠즈 목사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합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미숙한 사람의 기도는 뜯지도 않고 버려지는 쓰레기 취급을 당합니다(약 4:3).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서 무릎 꿇을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 세상에서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맨발로 울며 요단 강을 거슬러 피난을 갔습니다.

사울 왕의 친척 시므이가 요단 강 건너에서 다윗을 조롱하며 돌을 던졌습니다(삼하 16:13). 다윗은 울며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시 3:4~6). 다윗은 죄를 깨달았을 때에도(삼하 12:22) 병이 들어 고통스러울 때도 기도 드렸습니다(시 6:6). 다윗의 능숙한 기도는 모진 풍파를 이기고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하려면 기도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셋째 고난에 능숙해야 합니다.**

살아 있는 날 동안에 고난은 한 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능숙해졌으면 고난에도 능숙해야 합니다. 고난 당할 때마다 울고 넘어지면 안됩니다. 어금니를 꼭 깨물고 이겨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웠지만 죽을 때까지 고난이 따라 다녔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2~13). 사도 바울은 고난을 능숙하게 견딜 수 있는 일체의 방법을 예수님께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챨스 쉘던 목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썼습니다. 챨스 쉘던 목사는 어떤 일이 생기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팔을 가진 사람은 내 몸에 팔이 붙어 있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팔이 아프기 시작하면 내 몸에 팔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닥쳐도 느끼지 못합니다.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시 119:71).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려면 고난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고난에 능숙해지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고난에 능숙해지면 울고 싶을 때도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능숙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 새 역사 교과서, 바른 교육의 시작이 되기를

내년 신학기부터 사용될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여 선보였다(중학교 7종, 고등학교 9종) 교육부가 30일,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중에 역사 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결과적으로는 좌편향에서 조금은 돌아섰다는 평가이다.

일선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는 어제 · 오늘이 아니라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아예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한 탄핵으로 인하여 물러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불과 수일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검정교과서'로 바꾼 것이다. 거기에다 당시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까지 교과서에 실리는 일까지 있었다. 그래서 교과서가 아니라, '국정홍보용'이라는 비난도 있었다.

아무튼 이번에 새로 나온 교과서는 그런 불신을 약간은 불식시켰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멀어졌던 좌편향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편향성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는 국가의 정체성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런데 기존의 교과서에는 진보 · 좌파들이 사용하는 '민주주의'라고만 표기했었다.

둘째는 건국과 그 대통령에 대한 부정이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왕정 · 전제주의 국가였다. 국민은 왕의 지배를 받고, 왕을 위한 백성들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와서,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다. 이는 건국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셋째는 북한이 상투적으로 주장하는 일방적 내용을 표기한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내재적 접근'은 그들의 선전 · 선동에 불과한 것이다. 넷째는 6.25전쟁을 포함한 북한의 남침 행위와 북한 정권의 참상을 제대로 서술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간되는 7종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하여 7종이 서술하였다. 또 보수 정권의 경제 발전에 관하여 6종이, 천안함 폭침에 대하여 2종이 서술하였다. 반면에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은 1종만이, 또 북한의 지독한 3대 세습에 대해서는 한 곳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는 보수 정권의 공적(功績)은 무시하고, 진보 정권의 치적만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 확립, 6.25 남침의 절체절명에서 국난 극복, 근대화, 경제발전, 외교적.국제적 위상, 심지어 정치민주화 시작 등도 보수 정권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공'은 빼고, 오직 부정적인 것만 강조해 왔었다. 그런데 새로운 역사 교과서에서도 그런 측면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앞으로 만들어질 역사 교과서에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건국'과 보수 정권의 절대적인 '공'과 북한 체제의 잘못됨을 분명히 서술해야 한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이 탄생하고 유지되어 온 것이 이웃 나라의 큰 도움으로 된 것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넣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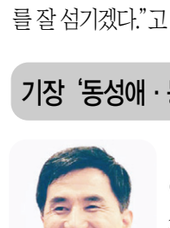
우리 역사 교과서는 정치적 지형에 따라 너무 많이 한쪽으로 쏠림현상을 가져왔다. 역사는 후대 사람들이 선대에 일어났던 것을 기록하는 것이니만큼, 가슴에 손을 얹고 바르게 기록해야 한다. 그래서 바른 역사를 기록하면 교육이 되고 교훈이 되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뒤집고 비틀면 역사의 큰 죄인이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어떤 공부보다도 바른 역사를 가르치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고, 자라나는 세대의 역사관과 인성을 함부로 도둑질 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를 담은 교과서는 공정과 진실적 서술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내년부터 사용될 새로운 교과서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충족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을 통하여 나타난 역사 교과서가 바른 역사 교육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 동정

### 예장개혁 총회장 정서영 목사



교단 통합 2년차를 맞이하는 예장개혁총회(통합 전 합동개혁-개혁)가 지난 9월 10일(화)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제109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서영 총회장의 연임을 가결했다. 정 총회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 명령을 따라 복음 전파의 중심에 서는 교단이 되자"고 전했다.

### 예장고신 정태진 신임 총회장

예장고신 제74회 정기총회가 지난 9월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원장 최승락 교수)에서 '선교: 일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요 20:21)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에서 총회장에 선출된 신임 총회장 정태진 목사는 취임사에서 "세워주셔서 감사하다. 총회를 잘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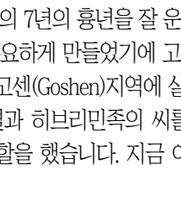
### 기장 '동성애 · 동성혼 반대' 서명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전상건 목사) 소속 '동성애 · 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환 목사 · 사진)'의 '동성애 · 동성혼 반대' 서명운동이 1천 명을 돌파했다. 김창환 목사(서울강서교회)는 지난 9월 10일(화) "9월 10일 기준 목사 290명, 장로 769명 등 440개 교회 1,05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총회 전까지 300여 명의 추가 동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윤성빈, 굿네이버스 나눔대사에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전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 선수를 나눔대사로 위촉했다. 지난 9월 9일(월)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진행된 위촉식에는 윤성빈 선수, 구동회 올댓스포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윤 선수는 2018년부터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 왔다.

## 목회단상



유 봉 수 목사
예하성 정책위 부위원장

# "국력을 손상시키는 아말렉과 송담을 제거하라"

창 41:34-36

나라가 흥하고 성하는 것은 한 사람의 특별한 지도자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글자를 모르는 백성을 불쌍히 여긴 세종대왕 한 분에 의해 한글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조대왕의 꿈으로 화성(華城)이 건설되었습니다. 조선 임진년, 정해년에 왜구가 침입하여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누가 나라를 구했습니까? 선조(宣祖)입니까? 그의 신하 윤두수, 대장 신립, 이일, 원균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이순신 장군 한 분이 왜구를 몰아내고 조선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를 경제대국의 대열에 진입하게 만든 것이 박정희 대통령 한 분의 영도력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부인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7년의 풍년과 그 후의 7년의 흉년을 잘 운영하여 애굽을 크게 부요하게 만들었기에 고향의 가족을 불러들여 고센(Goshen)지역에 살게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히브리민족의 씨를 키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 역시 요셉 같이 지혜롭고, 민족을 통일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모두 힘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이 시대의 탁월한 지도자가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탁월한 지도자는 국민에게 큰 꿈과 계획을 제시하는 자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정확하고 지혜롭게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최고 권력을 지닌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는 14년의 큰 계획을 작성하여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경제를 크게 부유케 하는 공로를 세우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의 가족들을 고센땅으로 초청하여 이스라엘민족을 태동케 하는 위대한 일을 이뤄냈습니다. 조선을 건국할 때에 정도전은 국가경영의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큰 그림(big picture)을 그렸습니다.

대한민국도 선량한 국민들이 힘을 모아 '나라의 불씨'를 만들어놨기에 오늘의 눈부신 경제, 군사, 외교의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근면한 국민들은 한 탁월한 지도자가 큰 그림을 그리고 제시한다면 예를 들면, 바다 탐사, 우주 개발 등을 계획한다면 - 온 역량을 다해 그 정권을 뜨겁게 지지하고 협조할 것입니다. 한국인은 하고자 하면 기필코 해내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탁월한 지도자는 국력을 손상시키는 아말렉과 송담을 제거하는 자입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아말렉(영어: Amalekites)은 여러 장소에 퍼져있는 공산주의세력입니다. 지난날 공산주의 혁명으로 소련의 스탈린은 자기 동족 450만 명을, 중국의 모택동은 300만 명 이상을 잔인하게 학살했으며, 저 북한의 김일성은 350만 명의 인민이 굶어죽는 최악의 극빈국가를 만들었음에도, 그런 역사의 암덩어리,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찬양하는 자들이야 말로 우리가 청산해야하는 아말렉입니다.

또한 '송담'이란 소나무(松)를 칭칭 휘감아서 수액을 빨아먹고 결국 죽게 만드는 기생담쟁이덩굴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국력을 빨아먹는 송담은 무엇일까요? 한 나라의 수장(首長)이 되었음에도 자국의 재산을 국민을 위협하는 적에게 퍼주어서 결국 적국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낸 자와 그의 추종자들이 우리가 제거해야 할 송담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해버린 공산주의의 의도대로 하나가 되는 통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통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에 의한 통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안에서의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계에서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 WCC 등의 이단들이 우리가 쓸어버려야 할 송담입니다.

**셋째, 탁월한 지도자는 이 시대의 당면한 과제, 통일을 이루는 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뜨겁게 불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지금 70대 이상의 국민들 대부분은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시절 이 노래를 목청을 높여 불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통일론(統一論)이 있습니다. 무조건적 통일, 환상적 통일, 준비 없는 통일, 그리고 공산주의로 하나 되는 통일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해버린 공산주의의 의도대로 하나가 되는 통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통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에 의한 통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안에서의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통일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디아스포라(영어: diaspora)는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로마의 디도(Titus) 장군의 말발굽에 짓밟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유대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에 비해, '알리야'(영어: Aliyah)란 하나님의 때에, 즉 예수 재림의 날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의 땅인 에레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은 많은 재물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그 행렬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한국판 알리야'가 꿈틀거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6.25 전쟁 때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견디다 못 해 평양을 비롯한 이북 여러 도시에서 보따리를 싸서 이남의 각처로 흩어졌던 이 땅의 디아스포라들이 고난을 이겨내며 2, 3대에 걸쳐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제 그 디아스포라들은 옛적 거룩한 성령의 불이 타오르던 평양 등의 고향으로 돌아갈 '알리야'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이북 피난민들은 다시 평양으로, 마치 하나님의 자석에 이끌리듯 이 땅의 디아스포라들은 알리야의 자리로 부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무릎 꿇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찬양합시다!

# 월례회 개최하고 말씀 중심의 사역 다짐

##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김상운 목사)는 지난 9월 2일(월) 오전 11시 익산성광순복음교회(김상운 목사 시무)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1부 예배는 김선여 권사(익산성광순복음교회)의 찬양인도와 통성기도 후 지방회 총무 김희수 목사(익산순복음제일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전임회장 최병진 목사(익산은혜와진리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겔 8:1~4 말씀을 본문으로 '에스겔의 4가지 환상'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며 우리들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겼는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임회장 표재옥 목사(성령알곡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의는 지방회장 김상운 목사(익산성광순복음교회)의 인도로 회원점명과 보고사항과 안건토의를 마치고 구봉숙 목사 뇌동맥류 시술을 위해 2일~7일까지 인도네시아 단기선교를 떠난 정종승 목사 부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지방회장 김상운 목사의 마무리 기도로 월례회를 마친 후 지방회원들은 오찬을 함께 한 후 코코밀 카페로 이동해 빵과 차로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교제를 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

##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이문근 목사)는 지난 9월 9일(월) 주는교회(담임 강원석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조숙희 목사(주품에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김진호 목사(진라와사랑의교회)의 대표기도, 강원석 목사(주는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강 목사는 신 32:10 말씀을 본문으로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철저하고 세심하게 지켜주시는지 본인의 간증을 곁들여 전했다.

강 목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가라"고 권면했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이문근 목사의 인도로 각종 보고사항을 유인물대로 전달한 후, 토의시간을 통해 지방회 송년 여행은 당일코스로 다녀오기로 하고, 지방회 한마음 체육대회는 10월 28일(월) 갖기로 했다.

끝으로 지방회 환우 목회자들 가정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한 후 회의를 마치고 주는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 충성된 용사들의 사랑을 본받는 목회자가 되자

##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효신 목사)는 지난 9월 10일(화) 선한순복음교회(담임 김은숙 목사)에서 9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서기 강신홍 목사의 찬양 인도에 이어 총무 서성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배길선 목사의 기도와 사회자의 성경봉독, 그리고 사모 중창단의 특송 후에 회계 김진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삼하 23:13-17 말씀을 본문으로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핏값'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아둘람 굴에서 심한 갈증을 느끼고 베들레헴 성문 곁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했다. 이때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들어가 물을 길어 왔는데, 다윗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고 가져온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처럼 세 용사는 다윗을 귀히 여기고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으며, 다윗 또한 용사들이 가져온 물이 피와 같은 물이었기에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렸다. 여기서 다윗과 세 용사의 아름다운 사랑을 볼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충성된 용사들의 사랑을 본받는 목회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 서성영 목사의 나라와 교단과 지방회와 치료를 위한 중보기도 후에 박서현 목사의 헌금기도와 김진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김효신 목사의 인도로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선한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오찬과 들깨가루를 선물로 받고, 인근 카페에서 교제를 나눈 후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목회 다짐

## 경기남서지방회

경기남서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9월 9일(월) 오전 11시 헐몬산교회(담임 김남순 목사)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광우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부회장 김남순 목사의 찬양인도, 표헌자 목사(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의 대표기도, 이광우 목사(순복음새생명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요 13:34 말씀을 본문으로 '서로 사랑하자'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베푸는 사랑을 해야 하며, 행함에 진실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먼저 희생(십자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해주셨으니 우리는 이웃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랑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미경 목사(순복음동방의빛교회)의 나라와 민족, 교단과 지방회, 개교회와 교역자를 위한 중보기도 인도로 함께 통성기도를 드리고 이원정 목사(다메섹교회)의 헌금 기도, 김기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회원 점명과 안건 제의 및 토론을 거쳐 생일을 맞이한 이규호 목사가 섬겨준 점심 식사와 교제를 마친 후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 월례회 및 양의문교회 전입예배

##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문찬우 목사)는 지난 9월 10일(화) 오전 10시 30분 양의문교회(담임 박승호 목사)에서 월례회 및 교회 전입예배를 드리고 양의문교회의 경기북지방회 전입을 환영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전임지방회장 김장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박응진 전도사, 이상숙 전도사의 찬양인도, 전임지방회장 육준수 목사의 대표기도, 김장수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문찬우 목사의 히 11:31-3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온전한 드림' 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총무 · 서기 전한배 목사의 헌금기도, 전임지방회장 탁정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문찬우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지방회 총무 · 서기 전한배 목사의 회원점명과 총무 · 서기보고, 재무 박태균 목사의 재정보고 후, 강인덕 목사의 폐회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후 지방회원들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 아산시지도자협의회 제9차 기도회 및 간담회

# 혼란한 시대 교회가 하나 되어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워야

### 국가의 안보와 대통령을 위해, 부정선거 대책 마련, 지역 균형발전 위해 기도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아산시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제9차 나라와 민족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도회 및 간담회를 지난 9월 3일(화) 오후 5시 택민교회(담임 이정팔 목사)에서 개최하고 균형잡힌 지역발전과 국가의 안보 국민화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합심하여 기도했다.

1부 예배는 상임회장 박노섭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상임회장 홍석용 목사의 기도, 부회장 한선희 목사의 성경봉독, 고문 강상철 목사의 설교, 상임회장 임용석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강 목사는 잠 25:13 말씀을 본문으로 '충성된 사자'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국가가 혼란한 시대에 오늘의 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여 지도자들이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워 갈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예배 후 곧바로 2부 인사 및 보고회로 이어졌다. 상임회장 황창익 목사의 사회로 열린 2부 순서에서는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예하성 전임총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진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세계적인 정세가 어수선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 나라와 민족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산시기독교지도자와 함께 더욱 기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회원들에게 환영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명수 자문위원(전 국회의원)의 축사를 통해 아산시 기독교지도자 협의회 목사님들께서 나라의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세계정세는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나라는 아산시 지도자목사님들의 변함없는 기도가 있어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했다, 전 나성 감독 신상우 목사의 격려사, 충남기독교총연합회장 박귀환 상임대표의 충기총연 공지사항 및 인사말씀이 있었으며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 김영석 자문위원과 국민의힘 아산을 지구당 위원장 전만권 자문위원의 인사말씀 순으로 2부 순서를 마쳤다.

곧바로 이어진 3부 기도회는 전 아기연 대표회장 조이철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상임회장 이정팔 목사의 '나라와 민족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상임회장 김병완 목사의 '아산시발전과 박경귀 아산시장을 위하여', 공동회장 서석웅 목사의 '전쟁종식과 국가안보를 위하여', 여교역자 대표 임인순 목사의 '부정선거 방지와 선관위 개혁을 위하여' 각각 주제별기도를 인도한 후 간담회를 갖고 만찬을 함께 나누고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 제12차 전국사모회 실행위원회 개최

# 제12차 전국사모회 단합대회 준비상황 점검

**10월 21일-23일**

전국사모회(회장 이을순 사모)는 지난 9월 12일(목) 오후 12시 30분 총회본부에서 제12차 전국사모회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하는 한편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과 전원성전, 제부도, 대부도 등지에서 10월 21일(월)부터 2박 3일간 열리는 제12차 전국사모회 단합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을순 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손선희 수석부회장의 기도, 김재희 서기의 성경봉독, 직전총회장 김병묵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잠 31:10 말씀을 본문으로 '현숙한 여인' 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사회와 국가를 만들며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그런 가정은 지상 낙원이 될 것이다. 서로 서로 하나님 은총의 선물로 여기며,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가운데, 현숙한 여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

이어 최윤정 재무의 헌금기도, 김세희 총무의 광고, 김병묵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곧바로 이어진 회의는 회장 이을순 사모 주재로 서기 김재희 사모의 회원점명 후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10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과 전원성전, 제부도, 대부도에서 열리는 제12차 전국사모회 단합대회 준비를 위해 세부적인 준비사항을 나누어 전달하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2024 여교역자국 추계수련회 및 야유회

|일시| 2024년 9월 26일(목) ~ 9월 28일(토) 2박 3일

|장소| **부산 순복음주찬미교회 외 2개 교회**

부산 순복음주찬미교회(담임 윤혜영 목사)
부산 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호
(051-867-1615)

|참석대상| 전국여교역자

|문 의| 재정부장 최정희 목사 (010-7592-5575)
행정부장 김찬애 목사 (010-3568-2384)

|참 가 비| 2만원

|계좌번호| 농협 356-1626-0870-93(조영란)

국장 조영란 목사
탄현벧엘교회

### 모시는 글

존경하는 교단산하 여교역자 회원 여러분!

폭염의 뜨거움처럼 세상이 반성경적세계관, 반기독교관으로 물들어 가는 암울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성경적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여 이 어두운 시대에 등불을 밝히려는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산하에서 부르심의 소명 따라 목양지를 섬김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외롭고 험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넉넉히 이기며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단을 지키는 여교역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24여교역자 수련회 및 야유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여교역자국 수련회가 기도의 삼겹줄로 하나 되어 목양의 고통을 나누고 기도하며 교제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고자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증거 되고 사랑의 수고가 풍성하여 위로의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의 인내가 진리로 굳건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함께함이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여교역자국 국장 조영란 목사 올림**

### 2024년 추계수련회 및 야유회 일정표

| | 26일(목) | 27일(금) | 28일(토) |
|---|---|---|---|
| 06:30<br>07:30 | 부산 주찬미 교회를 향하여 | Q.T<br>말씀의 떡을 떼며 | Q.T<br>말씀의 떡을 떼며 |
| 08:00 | | 아침식사 | 아침식사 |
| 09:00 | | 부산투어<br>하나됨과 위로의 시간들~ | 폐회예배<br>사회:안선자 목사<br>기도:이복순 목사<br>설교:백영자 목사<br>헌금기도:김종애 목사<br>장소:세움교회 |
| 10:00<br>11:00 | | | |
| 12:00<br>~<br>13:30 | | 점심식사 | |
| 14:00 | | 부산투어로 교제의 즐거움을 | |
| 15:00 | 등록 | | |
| 16:00<br>~ | 개회예배<br>사회:조병희 목사<br>기도:이인호 부총회장<br>설교:김영준 총회장<br>권면:한순남 목사<br>축사:탁정신 목사<br>헌금기도:최정희 목사<br>장소:주찬미교회/윤혜영 목사 | | 목양지로 |
| 18:00<br>~<br>19:00 | 저녁식사 | 저녁식사 | |
| 20:00<br>~<br>22:00 | WORKSHOP<br>진행:조은혜 목사<br>(글로벌미션교회) | 저녁집회<br>사회:김찬애 목사<br>기도:황연선 목사<br>설교:정부용 목사 | |
| 이후 | 숙소로~<br>단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 | |

**장소로 섬겨주신 부산지방회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역에서 교회까지 셔틀 차량 운행**

* 여러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김영준 목사
갈릴리큰소망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벧엘교회

자문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전임국장 탁정신 목사
온선교회

직전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국장 조영란 목사
탄현벧엘교회

### 조직

#### 임원단

예배부장 기장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복지부장 진리와사랑교회 이복순 목사

봉사부장 군업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홍보부장 대전대화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재정부장 성광교회 최정희 목사

행정부장 추계교회 김찬애 목사

행사부장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이명순 목사

친교부장 순복음은혜와사랑의교회 조은혜 목사

#### 전국지부장

서울중앙지방회 예수향기교회 정에스더 목사

서울중부지방회 은천교회 정해란 목사

서울강남지방회 순복음사랑교회 이현옥 목사

서울남서지방회 주사랑 순복음교회 이주안 목사

경기지방회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금자 목사

경기중앙지방회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경기남서지방회 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 표헌자 목사

경기북지방회 예수사랑교회 예정희 목사

경기남지방회 반석샘물교회 배길선 목사

일산지방회 늘행복한교회 신중임 목사

대전지방회 새로와지는교회 김희자 목사

충북지방회 은혜서원교회 장성미 목사

충남지방회 예수사랑교회 한정숙 목사

청주지방회 행복한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경남지방회 순복음 사랑의교회 최명애 목사

영남동지방회 순복음은혜교회 이순애 목사

부산지방회 순복음북있는교회 황연선 목사

광주지방회 은혜의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호남지방회 순복음예찬교회 홍광희 목사

은진지방회 은혜와진리교회 심연숙 전도사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국장 조영란 목사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제12차 전국사모회단합대회

## 주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모들이여, 일어서라!"(단 10:11)

강사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김영준 목사
갈릴리큰소망교회

### 모시는 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폭염으로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사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시는
존경하는 사모님들!
심신의 휴식과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제12차 전국사모회 단합대회에 사모님들을 초대합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모들이여, 일어서라!"(단 10:11)라는
주제로 준비한 은혜의 자리에,
전국의 예하성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 주의 사랑으로
친교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힘을 얻고, 합심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님들의 기도 후원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사모회 회장 이을순 -**

일자 | 2024년 10월 21일(월) 오후 2시등록, 3시 시작 ~ 23일(수) 오전 10:30

***개회예배는 첫날인 10월 21일(월) 오후 1시 30분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1층 아가페성전에서 드립니다. 예배 후 교회버스를 이용하여 전원성전으로 이동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10월 21일 월요일 낮12시에서 오후1시 10분 사이에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맞은편의 "양촌리"에서 '예하성사모회' 이름으로 식사하세요(마지막 주문은 12시 50분 마감).
2. 식사 후 1시 20분까지 안양성전 1층 '아가페성전'으로 오시면 됩니다(예배 후 교회버스를 이용하여 함께 전원성전으로 이동합니다. 자차이동도 가능).

장소 |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031-227-599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120 (왕림2길 76)

대상 | 교단 산하 전국 교회 목회자 사모

후원계좌 | 농협 352-2197-4294-03 (최윤정)

문의 | 총무 김세희 사모(010-2610-3816)

## 2024 전국사모회 전임회장단

고문

최해선 사모
기흥순복음교회

고문

김양숙 사모
은혜와진리교회

회장

이을순 사모
갈릴리큰소망교회

전임회장

김양란 사모
포항안디옥교회

전임회장

차경애 사모
진주은평교회

전임회장

신동신 사모

전임회장

차추련 사모
안동성곡교회

전임회장

윤금자 사모
목양제일교회

전임회장

김귀순 사모
아세아순복음교회

직전회장

**감사** 신명희 사모
부강순복음교회

## 2024 전국사모회 임원진

수석부회장

손선희 사모
홍제은혜교회

제1부회장

손정희 사모
확핀교회

제2부회장

최인석 사모
부산갈릴리교회

총무

김세희 사모
괴산순복음교회

부총무

박미용 사모
순복음한마음교회

서기

김재희 사모
색종이교회

부서기

김길순 사모
순복음성산교회

회계

나명숙 사모
상주반석교회

부회계

이순선 사모
시온순복음교회

재무

최윤정 사모
언양순복음교회

## 제12차 전국사모회단합대회 일정표

| | 첫째날 | 둘째날 | 셋째날 |
|---|---|---|---|
| 08:00~09:00 | | 아침식사 | 아침식사 |
| 09:00~10:00 | | 신앙유산탐방 (제암교회 3·1운동순국기념관) | 찬양 |
| 10:00~11:00 | | 제부도 투어 (서해랑 케이블카) | 폐회예배 (전직총회장 김인찬목사) |
| 11:00~12:00 | | | |
| 12:00~13:10 | 점심식사('양촌리' 안양성전 맞은편) | 점심식사 | |
| 13:30~14:30 | 개회예배(안양성전) 정책위원장 조용목목사 | | |
| 14:30~15:00 | 전원성전으로 이동 | 수목원 산책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 | |
| 15:00~16:00 | 등록,방배정 | | |
| 16:00~17:00 | O.T, 지방회소개, Ice Breaking (서울남서 조규성목사) | | |
| 17:00~18:00 | | 저녁식사 | |
| 18:00~19:30 | 저녁식사 및 휴식 | 휴식 | |
| 19:30~21:00 | 기도회 (교단총회장 김영준목사) | 조별 나눔 | |

ASSEMBLIES OF GOD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회**
**후원 : 총회 및 각 지방회**

# 성결대 인재 양성에 발전기금 전달

## 정금로지스틱스(주), 글로벌물류 · K-콘텐츠 인재양성 다짐

성결대학교(www.sungkyul.edu)가 지난 9월 4일(수) 정금로지스틱스(주) 이현진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받았다. 이날 기부식에는 정금로지스틱스(주) 이현진 대표와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박광일 이사장, 성결대학교 김상식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정금로지스틱스(주)는 국제물류와 미디어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룬 국제물류운송 기업으로, 이번 기부를 통해 성결대학교 글로벌물류학부, XR센터, 융합학부 K-콘텐츠 전공 및 차세대미디어제작 전공과의 산학 협력을 더욱 활발히 이어나갈 전망이다.

정금로지스틱스(주) 이현진 대표는 "오늘 진심으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성결대학교에 왔다"며 "앞으로 우리 정금로지스틱스(주)와 성결대학교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길 기대한다"라고 기부의 뜻을 밝혔다.

박광일 이사장은 "성결대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이현진 대표의 깊은 뜻에 감사하며 앞으로 성결대학교와 정금로지스틱스(주)가 여러 방면에서 같이 협력하여 발전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김상식 총장은 "이번 기부를 밑거름 삼아 성결대는 정금로지스틱스(주)와 함께 글로벌물류와 K-콘텐츠, 차세대미디어제작 분야에서 창의적인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장기기증의 날 앞두고 생명나눔 가치 나눠

##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3명의 환자를 살렸어"

공점덕 씨(여, 69세)가 손녀 나은아 양(10세)에게 오랜 시간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자 나 양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정말 힘드셨을 텐데 그런 결정을 하다니 정말 잘하셨어요."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2013년 11월, 결혼 후 줄곧 함께 장사를 하며 남편과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던 공 씨는 갑작스러운 뇌사로 남편을 떠나보낸 후 오랜 기간 사별의 아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모임인 '도너패밀리' 모임에 참석하며 위로를 얻고, 손주들에게도 남편 故 정동수 씨의 장기기증 사실을 알렸다. 할아버지의 장기기증을 자랑스러워하는 손주들의 모습에 큰 용기를 얻은 공 씨는 현재 도너패밀리 모임에 손주들과 함께 참석하며 생명나눔의 가치를 나누고 있다.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는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앞두고 7일과 8일 양일간 서울

종로구에서 생명나눔 카페 「에필로그」를 운영했다. 카페 「에필로그」에는 공 씨와 나 양을 비롯해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35명과 생존 시 신장기증인 15명 및 장기이식인,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등 200여 명이 모여 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기기증으로 써내려간 기증인의 사연을 나눴다.

이틀간 총 6회 차로 운영되는 생명나눔 카페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장기기증의 가치를 되새기고 가족 간에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생명나눔 카페에는 뇌사 장기기증인과 생존 시 신장기증인의 사연을 만나볼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방문객들이 장기기증의 감동적인 사연을 접하고, 기증인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또한 기념품으로 키링인 '디어링'을 증정해 일상 중에도 생명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왔다. '디어링'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이 장기기증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어 의미를 더했다.

# 엘드림 동네배움터에서 다양한 평생교육 진행

## 사단법인 해돋는마을, 2024 마포동네배움터 지원사업 일환

독거노인 및 쪽방촌 거주 어르신을 섬기는 무료급식 사단법인 해돋는마을(이사장 장헌일 신생명나무교회 목사)과 (사)월드뷰티핸즈(회장 최에스더 교수)는 서울시 마포구(박강수 구청장)와 함께 평생학습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마을의 성장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2024년도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엘드림 마포 배움터를 개소하여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엘드림 동네배움터는 고독생프로젝트 중심으로 삶의 가치 자존감 회복을 위한 기초문해교실로 기적의 미라클 암산, 마음으로 쓰는 시 창작교실을 운영중이며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동네 뷰티 서비스 봉사자 양성과정, 대흥동 생명 지킴이 양성과정을 제공중이다.

기초문해교실의 경우 나혜숙 교수(미라클 암산)와 류경근 교수(시 창작 교실)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월 2~3회 강의를 진행 중인데 수강생들의 학습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미라클 암산 교실은 수의 기본 개념과 덧셈 뺄셈 위주의 혁신적인 암산 기법을 지도한다.

대흥동 생명지킴이(LifegateKeeper) 양성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장민혁 교수는 고독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현황을 소개하고 1인 가구가 64%에 달하는 지역사회(대흥동)에서 생명지킴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흥동 고독사 제로'는 사단법인 해돋는마을, 사단법인 월드뷰티핸즈,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대흥동 주민센터, 그리고 대흥동 종교협의회가 지난 2022년부터 '고독사가 없는 대흥동'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특히 생명지킴이 양성과정 수강생들은 교육 이후 학습-실천 프로그램(대흥동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을 통해 지역사회(대흥동)와 주변 이웃들에 관심을 갖고 고독사 위험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기아대책, 평화적 복음 통일기대 포럼 개최

## '북한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제발표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 지난 9월 9일(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김덕윤예배실에서〈2024 한반도통일기대포럼 '북한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최했다.

〈한반도통일기대포럼〉은 북한선교의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한반도 미래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2024년은 특별히 남한의 탈북민 교회설립 20주년이자 기아대책이 민간단체 최초로 대북지원 사업을 실시한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감리교신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가 한반도의 통일 및 북한선교 관련 연구, 학술 분야 교류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첫 해로, 이번 북한선교 포럼에서는 각 대학 전문가들과 함께 탈북민 현황 및 북한선교전략을 점검하고 새로운 북한선교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교계 및 각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은 '탈북민대상 서베이 '2024 탈북신학생 및 탈북민교회현황', '변화하는 북한상황 속에서의 북한선교전략', '북한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하는 한반도정세와 향후 북한선교의 쟁점과 과제'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 전도의 복음열차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시 116:12)
예수 생명이여 길과 진리와 생명이로다.
가족세트전도 집회 중에 대역사가 일어난다.
복음이 있는 곳에 화해의 장이 열리는 장면은
여기가 천국이구나.
불일치가 일치가 되고 문제가 해결 되는
실제적 장면은 전도현장에서 참으로 아름다웠다.

주께서 이곳에 생명의 호흡을 주셨다.
너희가 내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오늘 여기에 복음의 꽃 피웠네.
복음은 예수그리스도의 피값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리스도의 향기, 그대 몸이시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곳에 오는 이여 그대에게 평화 있으라.

이곳에 머무는 이여 그대에게 평안이 있으라.
이곳에 나서는 이들이여 그대들에게 축복이 있으라.

교회여 생명이여, 사랑이시기에,
내가 이곳 갈릴리 호수삼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양을 먹이라 맡기셨네.
교회여 생명이여,
가족세트 전도집회 박영수 목사의
한 영혼을 주께로 전수받은 사역자들.
거리전도자로, 공원전도자로, 마스크전도자로,
새벽전도자로, 로또전도자로,
세계선교 복음화를 외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린다.

예수 사랑 내가 이곳 골고다 언덕삼아
너를 위해 물과 피를 흘렸다네.
너를 위해 여기에 복음의 꽃을 피웠다네.
복음은 용서가 움트고 화해가 이루어지네.
회복의 꽃이 피는 곳 복음은 평화! 평화일세.
놀라운 천국잔치 복음의 대역사로
사랑의 꽃, 용서의 꽃, 복음의 꽃, 화해의 꽃,
활 활 타오르네. 활 활 타오르네.
추석명절은 복음의 통로! 화해의 통로!

가족세트전도 총괄사무총장 이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천년초의 효능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1)페놀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탁시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찧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 · 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 선한 마음이 역사를 바꾼다

얼마 전 NTD KOREA TV에 소개된 아이젠하워의 선한 마음이 역사를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세계 제 2차 대전이 한창이던 어느 날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은 긴급 군사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프랑스 어느 지역에서 차를 타고 총본부로 가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휘날리는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어느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을 지나던 중 아이젠하워는 길가에 앉아 추위에 떨고 있는 한 노부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차를 세우고 통역관에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동행했던 참모는 "장군님, 회의에 참석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이 일은 이곳 경찰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며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다가는 저분들이 동사할지도 모르네"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통역관이 차에서 내려 노부부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노부부는 파리에 사는 아들을 찾아가던 중 자동차가 고장났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이젠하워는 망설임 없이 그들을 차에 오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노부부가 사는 곳부터 들러 그들을 내려주고 나서 총본부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연합군이 수집한 정보를 살피던 아이젠하워의 수행원과 당시 길을 재촉했던 참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총본부로 움직이던 그 날, 독일 나치군의 저격수 일행이 움직일 거라 예상된 경로에 매복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암살이 성공할 거라 확신했던 히틀러로서는 이런 변수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아이젠하워는 선한 마음 덕분에 암살을 피할 수 있었으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2차 세계대전의 역사가 아마 달라졌을 거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이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이처럼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 그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만 그 일로 더 큰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들려주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히 13:16)

##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 그 분은 누구?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 1:1 말씀을 마음에 새긴 그날부터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네.

그분은
언제나 내 앞에 계셨고
내 옆에 계셨고 내 뒤에 계셨고
내 안에 계신 분이었네.

그렇게 그분은
내 안에서 역사하며
나를 책망했고 위로하며
소망으로 인도하는
나의 참 목자가 되시었네.

〈말씀 앞에 서면〉을 쓸 때
야곱처럼 발꿈치 잡고
나온 쌍둥이 글이다.

## 사 설

#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정치학자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희한하게도 히틀러, 스탈린, 시진핑, 푸틴의 수법을 따라 하는듯하다고 말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것이 '큰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는 수법이다. 그 수법이 통했기에 그들은 이 수법을 자주 사용해서 국민들을 속여 왔던 것이다.

속이는 자가 나쁘지만 속는 자도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속이는 것이 먹혀들기 때문에 계속 속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지금 정치판에서는 갑자기 계엄 선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엄몰이를 하고 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래서 계엄령 시즌2라고 말들을 하고 있다.

계엄령 시즌1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벌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계엄령시즌1은 완전 거짓말이었고 나라를 혼돈속으로 몰아넣었지만, 수 백 명 사람들을 다 그쳐 댔지만 단 한 사람도 기소도 못한 것이 문재인 시절의 계엄령 시즌1이었다.

그런데 지금 계엄령 시즌2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왜 황당한 일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먹혀들고 그들이 환호하기 때문이다. 만일 계엄령을 선포한다면 어느 군인이 따르고 어느 국민이 박수를 쳐댈까.

192석의 거대 야당이 계엄령 해제를 결의하면 순식간에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는 헌법이 있는 데 어느 미련통이 대통령이, 어느 미련통이 참모들이 계엄령을 선포하자고 할까? 그런 정부라면 계엄령 해제와 더불어 순식간에 그 정부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정치권에서 난무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그렇게 쉽게 보고, 가볍게 보고, 무시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저질 사고가 이런 일들을 자꾸만 양산해 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정혜전 대변인은 말하기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등은 또다시 괴담을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설'을 계속 유포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1일 한동훈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계엄 이야기가 나온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으려 계엄과 동시에 의원들을 체포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모두 발언에서 한 말이다. 가능할까?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일인데 그리고 무려 42명에 해당하는 의원들을 체포해야 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무슨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일까. 황당한 이야기인데도 계속적으로 유포를 하고 있다.

큰 거짓말은 히틀러의 나치가 써먹은 대표적인 대중기만 수법이다. 히틀러의 부하 괴벨스는 말하기를 '큰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면 진실이 된다'고 하면서 큰 거짓말을 유포해서 당시의 독일 국민들을 선전 선동했다.

세월이 지나고 훗날에야 독일 국민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나라를 망친 그들을 비판하고 법정에 세우고 사형 등 단죄를 했던 것이다. 처음부터 속지 말아야 하는데... 히틀러도 그의 자서전 '나의 투쟁'에서 말하기를 '큰 거짓말은 대중이 믿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돼 먹은 자들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광우병, 청와대 굿, 사드 등으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골병들게 한 사람들....

이들이 이번에는 또 '후쿠시마 오염수'로 윤석열 대통령을 잡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옹호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오염수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미국, 캐나다는 왜 아무런 말이 없을까? 그들이 바보라서? 우리보다 미개한 국민이라서?

이제는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계엄령 선포설 같은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계엄령 선포를 믿을 사람들이 우리 국민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괴담과 유언비어를 날조하면서 퍼뜨리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의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제보는 상상력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근거가 없다는 말을 그렇게 에둘러서 한 말이다.

실체는 물론 없고 근거도 제시 못하면서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계엄령 선포설만 유포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그렇게 아무 말 잔치에 넘어갈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 제발 민생에 집중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15-20)


##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한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5학년도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 학 과 | 수업연한 | 지원자격 |
|---|---|---|
| 신학과 (신입생) | 3년 6학기 (140학점) |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br>2. 소명의식이 있는 자<br>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
| 신학과 (편입생) | 2년 4학기 |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br>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http://gd.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5학년도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문의처 : 02)2678-5181 FAX: 031)944-5181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http://gd.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 학 과 | 과정 | 수업연한 | 지원자격 |
|---|---|---|---|
| 목회학과 |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 3학차 |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br>•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br>•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br>•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 서 접 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6.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http://gd.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